

[목회자 모임]
연합으로 완성

2018. 5. 18. 이현래 목사님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전부 연합으로 완성되도록 지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져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바울이 연합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보이지 않았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 확실히 선악과 때문에 사람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 가려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볼 때마다 늘 기분이 좋지 않았다. 꼭 우리나라 운명을 그려놓은 것 같았다. 남북한, 네 군데 사괘가 있어서 마치 우리 주변의 4강인 것 같다. 불시에 만든 국기라는데 이상하게 우리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나는 태극기를 고쳐야 통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요즘에는 한반도 기를 들고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것이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는 불행이다.

태극기는 중국의 주역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우주가 결국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음과 양이 잘 연합하여 회전하면 우주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우주가 파괴되는 것이다.

나는 일장기를 볼 때마다 깨끗하고 좋고 힘이 넘치는 것 같다. 우리도 저렇게 국기를 만들지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국기를 만들었나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장기를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양이다. 빨강색은 양이다. 양이 커지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커지면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커지면 세계정복의 야욕이 같이 커져 버린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핵폭탄이나 마찬가지이다.

한반도는 분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겠지만 분열이 통일될 수 없을까를 항상 생각했는데, 당장 통일이 되기는 불가능하구나. 연합하면 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페이스북에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는 일국이체제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계속 쓰고 있다. 옛날에 김*중씨가 고려연방제를 주장했다. 그때는 그것이 너무 시기상조였다. 일반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빨갱이로 몰렸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통일은 불가능하고, 일국이체제로 연방제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불안한가하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일 중립화가 되기만 한다면, 둘이 잘 연합하면, 동북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쌍방 간에 무장해제하고 일국이체제로 통일이 되어 중립화한다면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 핵만 없앤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싸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UN의 감시 하에 중립화가 되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가장 완전한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트*프나 시*핑이 생각해야 하는데, 내가 공상을 해보았다.

내가 영어를 잘한다면 트*프에게 편지를 보내겠다. 이러면 당신들도 부담을 덜게 되고, 괜히 남의 나라에 와서 죽느니 사느니 할 필요도 없다. 시*핑은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 자기 옆 나라가 중립화되면 자기도 얻어먹을 것이 많다.

우리는 우리대로 동북아의 허브가 될 수 있다. 홍콩 이상으로 싱가포르 이상으로 돈이 몰려들어 올 수 있다. 내가 이런 것을 공상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보라.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다.

연합! 통일이 아니라 연합이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전부 연합으로 되어있다. 하늘과 땅도 하늘만 있다고 될 일이 아니다. 땅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지으시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형상과 모양이 연합해야 되지 갈라지면 안 된다.

또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간다. 2장에 들어가면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혼이 되게 했다.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였다.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 전부 그림으로 그린다면 태극 문양이다. 동양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린다면 그렇게 그릴 수 있다.

무엇이든지 혼자는 안 된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혼자는 안 된다.

옛날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사람(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2:18).”**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마음이라고 했다. 하나님 마음을 아담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또 불경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반

론이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는가? **하나님도 외로우시니까 하는 말이다. 하나님처럼 외로운 분이 없다. 배필이 없으니까.**

아담에게는 모든 권리가 다 부여되었다. 단지 무엇이 없는가? 배필이 없다. 사람도 태어나서 크면 제 일 과제가 배필을 찾는 것이다. 이 배필을 찾는 과정에서는 부모말도 안 되고 아무 말도 안 듣는다. 오로지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해야 된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다.

옛날에는 법으로 매어 부모가 하라는 대로 결혼을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될까봐 절절 매고 있다. 대구교회에서도 결혼 적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만나면 혹시 목사님이 자기에게 누구와 결혼 하라고 하면 어찌냐는 것이 최대의 고민거리이다.

그리고 자기 부모가 교회 안에서 결혼하라고 하면 어찌냐는 것이 자기들끼리 만나면 하는 고민거리이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다. 옛날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던 일이다. 나를 따라 온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비난도 많이 받았고,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노릇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때는 내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인데, 적령기에 있는 청년 남녀가 다 있었다. 지금의 창세기 형제자매들이다.

그런데 적령기가 되니까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와 결혼하면 좋을 까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삼각관계도 되고 사각관계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면 판도가 시끄럽게 된다. 질서 있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금지시켰다. 결혼 준비가 다 되기 전에는 일체 결혼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때는 사실 직장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다. 그런데 미리부터 생각들을 했다. 결혼할 준비가 딱 되면 그때 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적절하게 서로 중매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나이에 믿어지겠는가? 그 나이에 믿어지지 않는다. 고민이 많았는데 어찌어찌 다 끼워 맞추었다. 크게 불만 될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 두 사람 정도가 어려운 결혼을 했다. 그것이 짐이 되었다. 잘 살면 좋은데, 잘 살지를 못하니까 항상 가슴을 눌렀다.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모두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가 했

다. 하나님 노릇하는 것보다 따라 가는 것이 쉽다. 그때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요즘에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둔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놔두었는데도 젊은 아이들이 그 생각을 한다. 혹시 누구와 결혼하라고 하면 어쩔까 하는 그 생각을 한다.

밖에 나가서 데리고 온 것을 봐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것이 안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을 맡기기가 참 어려운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도 못 말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3).”**고 한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되어있다. 아담이 먹지 않았으면 된다. 조선시대 남자 같았으면 먹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먹어놓고 왜 먹었느냐고 하니깐 당신이 지어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다고 했다. 이것은 정말 못 말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배웠다. 이것은 말려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한 번 내가 경험하고 나서 뜨거운 맛을 보았다.

여러분은 해보지 않아서 관찮으시겠지만 나는 상당히 혼이 났다. 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 잘 살아야지 잘못 살면 전부 책임이 나에게 온다. 저희끼리 했으면 잘 살든 못 살든 내 책임이 아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했으니까.

내가 중매한 경우는 우리말에 중매가 잘 되면 버선이 세 켄레요 못되면 참 밧줄이 세 개(뺨이 세 대)라는 말이 있다. 남녀 관계는 못 말리겠다. 하나님도 못 말린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줄 때 하나님이 말렸으면 아담은 적어도 먹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도 못 말린 일인데, 사람이 어떻게 말리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인생의 쓴 맛을 경험하고 배웠다. 이것은 못 말리는 일이다. 자식과 해봐도 그렇다. 이것은 안 된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하라는 대로 요즘 아이들은 안 된다. 옛날 같으면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결혼을 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결혼하신 분이다. 신랑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외할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깐 결혼한 것이다. 그것도 20년이나 차이가 있는 상처한 홀아비와 결혼을 했다.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가 사주를 보니까 상처애비한테 가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가야 자기 명대로 살 수 있다는 사주팔자가 나온 모양이다. 일부러 상처 자리나 나이 많은 자리를 골랐다. 우리 어머니는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외할아버지

가 하라고 하니까 결혼하신 것이다.

우리 어머니 같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명대로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와 20년이나 차이가 난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을 조선 시대는 법으로 묶어놓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놓았다. 그래서 조선여자들에게 희귀한 병이 있는데, 그것이 가슴앓이 병이다.

외국 사람들에게는 없다. 미국 사람들은 가슴앓이라고 하면 괴병이라고 하고 정신병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한국에는 가슴앓이라는 병이 있다.

이 연합이라는 이 비밀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무시한 것이다. 왜 무시했는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안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았지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안 되었고, 하나님도 계속해서 그것을 밀고 가지 못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서는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다. 율법을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있는 데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뿐이다. 연합적인 관계가 없다. 그것은 불경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잘못하면 벼락 맞아 죽을 일이다. 감히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 하면 맞아죽어야 할 일이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일이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후기에 가면 이스라엘을 가르켜서 여호와와 아내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호세아서 같은 곳을 통해서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도 선지자들이 계시를 통해서 보았을 뿐이지 일반화될 수는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배필이라고 하고 살아남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필을 찾고 있다. 왜? **“사람(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2:18).”**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아담이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는가?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자기 마음을 자연을 통해서건 무엇을 통해서건 표현하는 법이다. 달이 휘영청 밝다고 할 때는 그냥 물질적인 달이 휘영청 밝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다. 시인의 말은 모두 은유적인 말이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은유적으로 써 있다. 히브리말 자체가 모두 시적인 표현이다. 중국 한문도 그렇다. 고어는 전부 시적인 표현이다. 중국 고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그것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쉽게 하느라고 백화처럼 만들었지만 그 전에는 전부 고어로 배웠다. 고어는 전부 시적이니까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다. 글자를 가지고도 전혀 뜻이 다른 글자를 쓰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시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한시를 보면 그렇다. 시라는 것은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영 엉뚱한 다른 말이 되고 만다.

소월의 시가 그렇다.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여. 누가 부르다가 죽는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애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예언서에는 그런 것이 잠깐 나오지만 그것이 이어져 오지 못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놀라서 경이로운 분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추종을 했다.

이적을 행하니까 놀라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이면 망한 나라를 구원해내겠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거기에 겹쳐져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없다. 기적을 계속 행하면 누가 잡아가겠는가? 내가 열두명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과연 열두명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대항하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신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때부터인가는 그것을 포기하신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식으로 가니까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게 되고,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다.

후반부에 가면 모든 말이 동문서답이다. 마지막에 겿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도 예수님께서서는 잠시 동안 나와 기도하자고 세 번이나 왔는데도 다 자고 있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다.

아무리 피곤하지 않아도 공부 안 되면 졸리는 법이다. 머릿속으로 쓱쓱 들어오면 밤중이라도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으면 잠밖에 안 온다.

제자들도 무슨 소리하는지를 몰랐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따라왔던 예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로 가게 되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또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해주려고 우리 대신 제물을 삼

으신 것이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배필의 관계가 안 된다. 연합이 안 된다. 항상 존경하고 경배하고 따라 가고 숭배할 대상이지 배필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지금도 안 든다.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가? 그런데 그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위대해졌기 때문에 아예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서는 멋모르고 믿었다.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예수를 끝까지 따라 갈 수 있는가? 이것이 과제가 되었다.

예수 같은 분을 누가 따라 가겠는가? 지금 생각하면 아예 불가능한 것을 도전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멀어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욘7:24).”**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일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의 어떤 본성이나 인격을 따라 갈 수 없다.

기독교사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근접했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교부들이라거나 그것이 결국 어디로 오는가? 교황으로 온다. 교부들 사상의 결정체가 된 것이 교황이다.

그러면 예수가 교황이 된다. 예수가 교황이 되었는데 감히 어떻게 하겠는가? **점점점 종교화되면서 예수는 배필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가버렸다.** 종교적인 것만 발달했지 그분과 우리 사이의 친근감이 없어져 버렸다.

주일학교 할 때는 아이들 좋으라고 하는 소리이고 모르고 하는 소리이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은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알아듣는가? 어른이 되면 말짱 헛일이다.

배필로 오신 주님!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신부를 구하러 왔다.** 사람들이 모두 와서 신부가 될 사람들이 모두 와서 ‘경배합니다. 죽도록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신랑으로 오신 분이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신부를 구하러 갔는데, 신부가 옆드려 절을 하면서 ‘나는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뒤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본받겠습니다.’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하라는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분 앞에 가서 옆드려 절하고 그것 밖에 모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대상으로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은 점점 사람으로 신부를 구하러 왔다가 신부를 구하지 못하니까 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결국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자기가 연합을 위해서 온 그 인간을 구원한 것이다.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분이 되었다.

우리가 안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모두 엎드려 경배만 하고 있으니까 왕관도 벗어야 되고, 왕복도 벗어야 되고, 독생자도 벗어야 되고, 다 벗어야 된다. **목표가 신랑이 되는 것이고 신부를 구하러 왔으니까.**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데가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예언이나 점치는 책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은 어린양의 혼인잔치이다.

세상에서 무시되고 버림받은 어린양이 신부를 구했다는 것이다. 혼인잔치이다. 맨 마지막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것이 결혼의 클라이막스이다. 뒤로 가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신부를 구하러 왔지 종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과 연합하면 뭐가 나오게 되고,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냥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전파할 수 없다. 혼인잔치가 될 수 없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요한은 맨 앞에 제시해 놓았다. 요한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전부 어린양의 혼인잔치이다. 잔칫집에 가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썰렁해져 버렸다는 말은 재미가 없어졌다는 말이다. 그런데 포도주가 되시니까 잔칫집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기 때문에 신랑이 오니까 잔칫집에 살아났다는 뜻이다.

오늘 우리에게 준 계시는 사도 바울이 본 대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6:5).”**

로마서를 믿음을 위한 책이라고만 생각하기 쉽고, 믿음하면 로마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이 아니고 <연합>이 중요하다. 믿음은 그 전 단계일 뿐이다.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했다. 안 되는 모든 것은 전부 믿음에 맡겼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어려웠다. 어떤 사람은 딱 믿어버린다는데, 나 같은 사람은 딱 믿어지지 않음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세계에 가면 굉장히 어렵다. 뭘 알아야 믿어지는데, 모르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깐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다. 그렇다고 그것밖에 모르니까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로마서를 읽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무슨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밖에 안 된다. 우리 믿음은 한계가 있다.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가?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되었으면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담이 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3).”**고 하니깐 간단하고 쉽다.

예를 들어 믿음으로 여자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는 너의 천상배필이니 믿으라고 하면 이것이 쉽겠는가? 그런데 자기 갈빗대를 빼서 만들어놓으니깐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렇게 쉽다.

한 생명이 되면 이 세계가 너무너무 쉬운 일이고, 한 생명이 아니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어렵다기 보다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만나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알고 보면 수박 겉핥기이다. 깊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다.

정말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연합을 신비로 해석했다. 연합은 신비라고 생각하여 신비주의에 빠졌다.

예수님이 말씀 하셨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요(요14:20).”**,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7:21).”** 그날에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연합의 비밀이지 믿음으로 그것이 되겠는가.

내가 정말 믿음을 강조하는 곳에 갔다. C.C.C.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곳이다. 큰일을 전부 믿음으로 하는 곳이다. 가보면 놀랍고 감동적이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나에게서 없다.

김*곤 목사님도 알고 보면 믿음으로 성공한 분이다. 미국에 돈을 모금하러 갔다. 그때 한국에서 누가 돕는 사람이 있었는가? 돕는 사람이 없었다. 다 미국에서

모금하여 했다. 얼마나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되겠는가? 기도를 하면 되는 것도 있다.

나도 한 번 해봤는데 충주에 갔을 때, 간판 떼어서 나가라고 했다. C.C.C., YMCA, RCY가 모든 간판이 그 교회에 붙어있었다. 그 교회가 중심교회이다. 그런데 재직회에서 회의하기를 득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니까 다 내보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 줄 알고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나는 믿음으로 갔다. 민족복음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한 사람을 전도 훈련을 시키면 이 사람이 두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두 사람을 다시 전도 훈련을 시키면 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순론이라는 것인데 막 퍼져 나가는 것이다.

엑스플로 74가 30만 기독교인을 불러다가 전도요원으로 훈련을 시키면 10명씩 전도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300만이다. 그 다음 목표는 300만을 다시 한 번 전도훈련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면 3천만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도 희망이 생겼다.

그런 희망이 차 있을 때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방금까지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 우리 다시 한 번 일해 보자고 했다. 감리교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장로교 목사님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감리교는 옛날부터 전통이 그렇게 내려와서 장로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서 6개월 동안 대리 목회를 했다. 그 교회가 내가 맡은 지역의 모교회이고 중심교회이다. 내가 맡은 곳이 충주 중원 제천 단양인데 이 지역의 모교회이다. 지금 같으면 150명 정도 되는 교회이다.

그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나에게 교회를 맡겼다. 내가 6개월 동안 강단을 맡았다. 엑스플로 때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었다. 2~3군데 가보니까 내 힘으로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고 그 교회 일을 했다.

서울에 가보니까 얼마가 왔는가? 3천명이 왔다. 난 300명도 못할 사람이다. 옆에 간사가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동원을 했느냐는 것이다. C.C.C. 간사들은 사람들 동원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냥 그 목사님이 나를 신뢰하여 교회를 맡기니까 6개월 동안 강단을 지켰

다. 그 중심교회에서 내가 강단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감리교 전체가 하나 같이 단합을 한다. 아무 이유가 없다.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데리고 온다.

나는 감리교를 처음 만났는데 장로교와는 완전히 다르다. 목사들이 대부분 겉으로 보기에는 건들건들한데 실제적인 권위가 있다. 여기도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지만 장로교 목사들은 목이 뻗뻗하게 굳어있다. 내가 만나보면 그냥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권위가 하나도 없다. 다 물어봐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장로도 목사와 동급이다. 하나는 교육 장로이고 하나는 치리장로이니까 똑 같은 것이다.

거기서 권위가 있는 사람은 겉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권위가 없는 사람이 권위를 세우려고 깃스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 가서 감리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나도 어려서부터 장로교에만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밖에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자리가 없다.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불가능하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일찍 포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렇다. 결국 나오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롬7:24).”** 이것밖에 나올 것이 없다. 믿음을 짜내느라고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된다. 믿음밖에 무기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믿음이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분과의 연합, 그것이 최종적인 일이다.

왜 믿음이 필요했는가? 그것도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다. 이 중요한 진리가 딱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전부가 연합이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연합이다.

3장에 가면 분열이 생긴다. 아담에 네가 왜 이것을 먹었느냐고 하니깐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했다. 벌써 둘이 갈라져버렸다. 가인과 아벨이 갈라져 버렸다. 제물을 드리러 갔다가 싸워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

창세기 3장부터 분열의 역사이다. 바벨에 이를 때까지 분열의 역사이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선악과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좋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모세 시대 이후로 오면 율법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연합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밖에 줄 수가 없다.

연합이 되면 하나님도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다. 아들 예수와 연합하는데 하나님이 신경 쓸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너무 안전하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갈증이 나고 감질 난다. 어느 때는 되는 것 같다가 또 어느 때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만민 구원이 언제 되겠는가? 거기도 또 줄을 서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듯이 줄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 되겠는가? 천로역정을 다 읽어보셨을 텐데 천성문에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도 험난하고 어렵다.

그것을 다 이기고 돌파하고 올라가야 천성문에 이르게 된다. 알고 보면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중세 기독교의 명작이다. 지금도 천로역정의 신앙노선을 별로 벗어나있지 않다.

이제 우리가 살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연합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은 누구도 가능하다. 믿음이 있는 자도 가능하고, 믿음이 없는 자도 가능하다. 약한 자도 가능하고 강한 자도 가능하다. 빈부귀천이 따로 없다. 잘나고 못한 사람이 따로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자리에서 만난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지혜)이라(고전1:18).”** 이보다 더 다른 지혜가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다른 지혜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 전해서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어놓아야 된다. 시험 봐서 들어오는 그런 학교를 만들면 안 된다.

꿀찌도 일등도 없는 그런 나라야 천국이 되지 일등이 있고 꿀찌가 있으면 천국이 되겠는가? 거기서 사랑을 하고 아무리 해봐야 천국이 안 된다. 세상이 다

른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세상이다.

교회도 모든 것을 다 해도 그 안에 차별이 생겨버리면 천국이 안 된다.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충성심이 강한 사람, 강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을 다 구별해버리면 천국이 안 된다.

그것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 만나져야 천국이 된다. 모든 것을 제한, 예수님에게서 모든 옷이 다 벗겨지고 난 후에 우리와 연합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도 모든 옷이 벗겨지고 난 후에만 다른 사람과 연합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연합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다 헛일이다.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 다 있다. 기독교만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다.

스승과 제자로 따라 가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은 어디에든 다 있다. 요즘 불교에서 찬불가를 부르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이 찬송가보다 훨씬 질다. 찬송가 내용 보다 훨씬 깊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석가모니와 나는 연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자님도 훌륭한 분이지만 우리와 연합이 불가능하다. 그런 분을 만나면 다 갈라져 버린다. 일등부터 100등까지 다 갈라져 버린다.

석가모니 밑에 가도 큰 스님, 작은 스님 한다. 스님 중에서도 계급이 갈라져 버린다. 더 많이 깨달은 사람, 더 깨달지 못한 사람이 자연히 갈라질 것이다. 큰 스님 법회는 있지만 작은 스님 법회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이 되겠는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사람은 천재들만 살아남는다.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로이다. 천재들만 천당에 가지 둔재들은 천당에 가지 못한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키워서 천성문에 가겠는가? 마지막 천성문의 장면이 사자인지 호랑이가 다 왔더니 문 앞에서 어르렁 거리고 있다. 그것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것이다.

단테 신곡에는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데리고 천성문까지 가고는 더 이상 못 데리고 간다. 자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못 데리고 간다고 한다.

우리가 그런 종교를 세상에 전파하면 안 된다. 이제는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을 괴롭게 할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어야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이것이 예수님만 하실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 편하고 쉬어야 된다. 내게 와서 또 나를 따라 오려고 힘쓰

고 애쓰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신랑은 오직 연합할 신부만 찾고 있다. 신부는 높나 낮나가 아니다. 결혼하면 20살짜리 처녀가 80세 먹은 노인과 결혼을 해도 동등해져 버린다. 희한한 일이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다가 결혼하면 여보 당신이 되어버린다. 그것이 결혼의 비밀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배필을 찾아왔지 결코 종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왜 그분이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가를 모르겠더라. 그러니 감사가 나오겠는가? 지금은 진짜로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연합하는구나. 죽지 않았으면 연합하지 못했겠구나.

만일 뛰어내렸으면 역시 또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았더니 뛰어내렸다면 박수치고 좋아할 일 같지만 우리는 허당이다. 더 어렵게 되어버린다. 그가 뛰어내리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이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게 된 것이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것이 우리를 구속하게 되었다.**

우리의 원위치를 보게 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다. 뭘 하라는 말이 아니다. 장대에 달린 낫뱀을 쳐다보기만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독이 다 빠져 나갈 것이다.

우리에게 무슨 독이 있는가? 선악과라는 독이 있다. 하나님 같이 되려는 독이 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다. 선생을 따르는 이유는 선생처럼 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는 선생처럼 되면 선생을 버려 버린다. 제자가 공부를 더 하면 선생을 무시해 버린다. 외국 유학을 가서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좋은 학위를 받아 오면 전에 존경하던 선생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때 참 존경하던 선생님이 대학교에 가서 보면 아주 유치하고 우습게 보인다. 배우는 세계는 그렇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오실 때 그렇게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도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하늘로 도로 돌려보내고 만 것이다.

나를 찾아서 혼인하려고 왔는데, 돌려보낸 버린 것이다.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너무 존경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너무 여자를 존경하면 결혼이 안 된다. 남자도 그렇다. 너무너무 존경하여 아내가 되면, 아내가 된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너무너무 존경해지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자에게는 자기와 연합할 남자가 필요하지 아주 존경스러운 남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다 결혼하지 못한다. 위대한 사람만 결혼하지 시원치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하겠는가?

사모님들에게 물어보라. 너무너무 존경하는가? 아니면 좋아하는가? 좋아하는 사람과 살고 싶지 너무 존경하는 사람과는 살기가 어렵다. 부담스러워서 못 산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이끌어 왔다고 한다. 이름을 다 지었는데, 왜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또 지었는가? 그것은 배필이 없다는 뜻이다. 할 수 없이 갈빗대를 빼서 지었다는 뜻이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배필을 구하러 왔다.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

이것이 연합의 비밀이다. 이것은 끝이 없다. 살아봐야 된다. 살면 살수록 이것은 진국이다. 교리처럼 한 번 마시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영원히 두고두고 먹고 영양분이 되고, 내 자신이 되는 그럴 일이다.

교회가 혼인잔치가 되려면 이것이 되어야 혼인잔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혼인잔치가 안 되고 사원이다. 예배당,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다. 오늘 주일이니 예배드리러 가야지라고 한다.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로교 4대째인가 그렇다. 고대부터 장로교인데 마지막에 노인이 되어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셨다. 사위가 목회를 하는데 사위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사위 교회를 가면 예배를 못 본다.

그래서 1부 예배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시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셨다. 말씀은 참 좋은데 예배를 못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오셨다. 한 참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깨달으시고는 가지지 않았다.

예배드린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예배는 절에서는 하는 이야기이고, 사원에

서 하던 이야기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당연히 그랬다.

지금은 '예수 안에서' 밖에는 예배가 안 된다. 아들로써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실재로 예배하느니라. **아들이 아니고서는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이다.** 예배라는 의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의식으로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감사합니다.